

<2014년 8월 3일 주일말씀>

많이 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된다

본 문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할렐루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주일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빕니다.

<8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은 ‘**많이 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된다.**’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

흔히 <자기의 할 일>이나 <휴거>를 두고, 자기 입장과 처지, 자기 나이, 자기 상황, 주변 환경, 시간적인 이유를 대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든지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확실한 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여 ‘**확실한 답**’을 받고 행하여 표적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

오늘 말씀을 받기 위해 새벽 1시가 조금 넘어서 일어나 씻고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너무 피곤하니 별로 기도하고 싶지 않았고,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현재 이런 마음으로는 기도도 안 되고 주저앉겠구나. 어디에서 힘을 얻을까? 무엇을 잡고 마음과 생각을 일으키지?’ 하고 있는데, 그 순간 확~ 생각났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1>

과거에 ‘그동안 해 온 것’ 과, ‘그동안 믿어 온 것’ 과, ‘그동안 쌓아 놓은 신앙의 업적’ 이 생각났습니다.

현실에 처한 상황을 보며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어도 ‘그동안 내가 믿어 온 것’ 이 있고, ‘행해 온 것’ 이 있고, ‘이미 쌓아 놓고 세워 놓은 신앙의 공적’ 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니 하기 싫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사탄도 왔다가 물러났습니다. <끝>

그동안 해 왔던 것을 생각하니, 참 많이도 해 놓았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현실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동안 해 놓은 것’ 이 많이 있으니, 그것은 확실하니, 그것을 보고 믿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본 제스처)

섭리인들도 잘하다가, 어느 때는 현실에 어려움이 닥쳐서 좌절하기도 하고, 마음과 생각이 실 가닥같이 약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놓은 업적’ 을 생각하면서, ‘약한 마음’ 과 ‘현실의 어려움’ 에 대처하라고 성자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모두 깨닫고 행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회사가 **현재 어려움에 처했어도** ‘그동안 벌어서 저축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당겨서 쓰고, 또 ‘그동안 해 오던 것’이 있으니 그 힘으로 행하다 보면 어려움을 벗어나듯이, <신앙>도 그러합니다.

성자는 선생 먼저 겪게 하시고,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며 이기게 하시고, 섭리인들 모두가 그러하니 이 말씀을 주며 힘을 내게 하십니다.

선생에게 보내온 편지들을 보면, **현실에서 어려움을 겪으니** 믿음이 흔들린다고 걱정하며 이러다가 자기 신앙이 파선되면 어떻게 하느냐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현실은 어려워도 ‘과거부터 지금까지 해 온 것’이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면 용기를 내게 되고 기쁨과 희망이 생깁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섭리사에 온 사람들은 ‘나는 이제 섭리사에 와서 그동안 쌓아 놓은 신앙과 믿음이 없는데, 현실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생각할 것입니다.

‘앞날에 말씀대로 희망으로 행할 것들’이 많으니, ‘앞으로 행하여 얻을 것’을 생각하며 힘을 내고, 희망의 밭줄을 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본 제스처)

현재 **전도가 안 되어** 낙심해도 ‘과거에 전도해 놓은 생명’을 생각하면 힘이 납니다.

또 **전도를 못 하여** 낙심해도 ‘앞으로 전도할 생명’을 생각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현실이 힘들면, 현실에서 하루만 자신감을 가지고 힘 있고 담대하게 행하면, 판국이 달라집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날 새벽에 성자는 먼저 이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어서 핵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많이 해 봐야 된다. 많이 해 봐야 앞날에 어려움이 닥쳐도 ‘그동안 해 놓은 것’ 이 있으니 기쁨과 희망으로 산다.” 하셨습니다.

(기본 제스처)

- ◆ 지구가 존재하듯 <전능하신 하나님>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조금만 배우고 금만 믿으면, 의심이 생겨서 안 믿어집니다.
- ◆ <성자>가 계셔도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믿으면, 의심이 생겨서 안 믿어집니다.
- ◆ <성령님>이 ‘여성 신’ 으로서 절대 존재하고 있는데도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믿으면, 이유를 달면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 ◆ <선생>에 대해서도 조금만 배우고 조금만 믿으면, 사명이 조금만 믿어져서 결국 의심하고 나가게 됩니다.
- ◆ 아무리 <구원자>를 만났어도 조금만 믿으면 의심이 가서 결국 못 믿게 됩니다.
많이 믿어야 의심이 안 가고 온전히 믿게 됩니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구원자>도 100% 믿고 많이 사랑해야
어려움이 있어도 ‘의심’ 이 안 가고 ‘신앙’ 이 파선되지 않습니다.

(한 손 기본 제스처)

<말씀>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해 놔야 ‘신앙’ 에 문제
가 생기지 않고 성공하게 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100% 믿고, 100% 행해야 <문제의 병폐>
가 없어집니다.

고로 성자는 “모든 것을 100% 확인하고 하여라.” 말씀하신 것입
니다.

100% 확인하면 100% 알게 됩니다.

아는 만큼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됩니다.

-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100% 살아 계시고,
- <섭리역사>는 100% 하나님의 역사이고,
- <보낸 자>는 100% 보낸 자가 맞고,
- <시대 말씀>은 100% 생명의 말씀이 맞으니,
- 확인하고 100% 믿고 알고 행하기 바랍니다.

→ 확인할수록 믿어지고,

확인할수록 완전한 <하나님의 섭리역사>입니다.

고로 100% 배워야 됩니다. 100% 배워야 100% 믿어집니다.

사탄은 조금 배우고, 조금 알고, 조금 행하는 자를 유혹하고 끌고 갑
니다. 제대로 모르니, 잘 속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하는 자는 이미 사탄 주관권을 벗어났기에 사탄이 유혹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 구원자>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확실히 믿고 많이 행합니다.

고로 많이 알고, 많이 믿고, 많이 행하도록 많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사람은 사람으로서 사람만큼 해야만 존재하며 살 수 있습니다.

개미는 개미로서 개미에 해당되는 만큼만 하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사람만큼 해야 <사람 차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일 사람이 신의 차원만큼 하면 <하나님적 역사>가 일어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는 했지만, ‘많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기본 제스처)

선생 방에는 늘 서류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매일 보고 소각해도 방이 좁아서 곤고했습니다.

성자에게 말하기를 “해도 해도 서류는 줄지 않고 표가 안 나고, 이제 는 앓을 자리도 없어 비좁습니다.” 했습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열심히 부지런히 해도 해결이 안 되는 이유는 ‘많이 안 해서’ 그러하다.” 하셨습니다.

다시 성자에게 말하기를 “제가 서류들을 많이 없애면 섭리 행정 파악이 안 됩니다.” 했습니다.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나 같으면 3분의 1만 남기고 다 소각하겠다. 많이 해야 눕기도 하고, 발을 뺐기도 한다.”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서류들을 더 많이 보고 결재하고, 결재한 것들은 다 소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앉아서 다리를 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없애서 생각이 안 나는 일이나 사람이 있으면, 성자에게 모두 입력되어 있으니 성자에게 물었습니다.

모두 이와 같이 성자를 의지하고 많이 행해야
표적이 일어나고, 문제도 해결하고, 휴거 안 될 자도 휴거됩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되, 많이 행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자기 문제도, 휴거 문제도 해결됩니다.

휴거가 안 된 자들은 행할 것이 있는데 못 행했기 때문입니다.
100% 믿고 많이 행하면, 육과 혼과 영이 표가 나게 변화됩니다.

<잠시 쉬었다가>

◆ <할 일>을 두고 조금만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많이 해야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에 따라 성공하게 됩니다.

◆ <공부>도 조금만 하니, 성적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강도 높게 많이 해야 성적이 표가 나게 좋아지고,
그에 따라 표적이 일어납니다.

- ◆ <밀린 일>도 조금만 하면, 계속 밀려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많이 해야 <밀린 일>이 표가 나게 줄어듭니다.

- ◆ <회개>도 많이 확실히 해야 됩니다.

<회개>를 조금만 하면
마치 암에 걸린 자가 암덩어리를 조금만 떼 낸 것과 같아서
좋아진 것이 표가 안 나고,
또 암덩어리가 자라나서 다시 아프게 되듯 합니다.

- ◆ <건강>도 많이 살피면서 관리해야 표가 나게 좋아집니다.

배가 불룩 나오고 허리가 코끼리 허리처럼 굽은 사람이
몇 달만 조금 운동하고 몇 달만 소식한다고 해서
배가 쭉 들어가고 허리가 사슴처럼 가늘어지겠습니까?
7개월 이상, 10개월 이상 운동하고 소식해야 표가 납니다.

- ◆ <기도>도 조금 하면 표가 안 납니다.

많이 강도 높게 해야 기도한 표가 나서
‘언을 것’을 얻게 되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 ◆ <자기가 맡은 일>도 많이 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 ◆ <설교>를 잘하려면

먼저 설교 내용을 많이 읽고 완전히 이해한 후에
제스처, 심정, 음성, 강약을 많이 연습하고 해야 됩니다.

성자도 분체도 늘 함께하지만
그 사람의 그릇대로, 그 사람의 재능대로,
그 사람이 잘하는 만큼만 ‘능력’을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2>

<월명동>도 <야심작>뿐 아니라 전체 돌 조경을 하여 돌을 많이 갖다 쌓고, 옆으로 쪽 길게 쌓고, 위로 높이 쌓았기에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입니다. (기본 제스처)

만일 <야심작>만 돌 조경 작품을 해 놓았다면, 아름답지도 신비하지도 웅장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많은 돌을 갖다가 수백 미터를 길게 쌓았고, 거기에다 높이 쌓았기 때문에 그리 아름답고 신비하고 웅장한 것입니다.

<소나무>도 한두 주 심었다면, 월명동 전체가 밀림같이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길>도 한두 개 냈다면, 별로입니다. 소롯길(소로小路), 등산로, 산책로를 많이 닦아서 <길>이 여러 가지로 길게 나 있으니, 수천 명씩 가도 동시에 산책하고 등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월명동>도 앞으로 더 많이 일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 금도, 은도, 보석도 많이 있어야 표가 나서,
그것으로 인해 표적이 일어납니다.

◆ 돈도 많이 벌어야 표가 나고, 돈을 쓴 곳에 표적이 일어납니다.

- ◆ 집도 건물도 크게 많이 지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 ◆ <생명 관리>도 조금만 하면, 생명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 ◆ <전도>도 조금만 하면, 전도될 자라도 안 됩니다.
- ◆ 또한 <전도>를 2~3명만 하면
별 표가 안 나고 표적이 안 일어납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3>

선생같이 수만 명씩 전도해야 <시대 표적>이 일어나 <섭리의 한 나라>가 되고, 그를 <구원하는 사명자>라 부를 수 있습니다. <끝>

- ◆ 영웅 열사든지, 세상의 어떤 권력자와 세력가든지
조금 하면 표가 안 납니다.
- ◆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도 많이 하면 표가 나서 표적을 일으킵니다.
- ◆ 안 된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하면 표가 나서 표적이 일어납니다.

<잠시 쉬었다가>

- ◆ 그러나 <죄>는 많이 지으면,
회개할 것이 많아지니 천국에 갈 자신을 잃게 됩니다.

<죄>를 많이 지은 만큼 많이 회개하고 많이 의를 행해야 됩니다.
- ◆ <죄>를 조금 지으면, 지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회개하면 되니, 회개할 마음이 생기고 자신이 생깁니다.

◆ <새벽>에도 일찍 일어나면,

많은 시간이 있기에 자신 있게 행합니다.

◆ <할 일>을 두고 시간이 많지 않으면, 자신이 없어집니다.

고로 먼저 ‘많은 시간’을 뺏어야 됩니다.

◆ 조금 배우고, 조금 알고, 조금 행하면

의심도 생기고 가능성도 없으니

자신이 없어서 더 행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해 놓고 쌓아 놓으면

의심도 없어지고 가능성도 많아지니

자신 있게 더 행하게 됩니다.

◆ 많이 행하는 자는 성공하고, 조금 행하는 자는 실패합니다.

◆ <휴거>에 대해서도 조금 배우고 조금 행한 자들은

변화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 갈 길이 멀고, 의심도 생겨서

휴거되는 것을 자신 없어 합니다.

그러나 <휴거>에 대해 많이 배우고 많이 행한 자들은

영도 혼도 그만큼 변화되어 있으니 자신이 생겨서

나머지도 연속적으로 자신 있게 행하여 꼭 <휴거>를 이룹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4>

‘산’을 개간하여 계획적으로 ‘밭’으로 만들면, 꿈쩍없이 ‘밭’

이 됩니다. 더 차원 높여 ‘논’ 으로 만들면, 꿈쩍없이 ‘논’ 이 됩니다.

또한 ‘산의 나무’ 를 베다가 ‘집’ 을 지으면, 꿈쩍없이 ‘집’ 이 됩니다.

이와 같이 ‘자기 육’ 을 가지고 ‘자기 영’ 을 만들고 변화시키면, 꿈쩍없이 ‘하늘나라 형체, 휴거의 영’ 으로 만들어집니다.

‘육’ 이 <시대 말씀>을 듣고 <성삼위와 구원자>를 믿고 사랑하며 행하는 대로 ‘영’ 이 변화되고 만들어집니다. <끝>

◆ ‘자기 육’ 이 말씀대로 행하여 ‘영’ 을 많이 변화시켜 놓으면, 휴거되어 천국까지 갈 자신이 있습니다.

◆ <할 일>을 두고 많이 한 자는 자신이 생깁니다.
거기서 나머지만 하면 됩니다.

◆ 게으른 자는 조금만 행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 부지런하여 열심히 많이 행하니, 모든 일이 잘되는 것입니다.

◆ 모든 <이상세계>는 ‘많이 한 자의 것’ 입니다.

◆ 물건을 살 때도 돈을 조금 가진 자는 큰 물건을 못 삽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가 큰 물건을 삽니다.

◆ <새 시대>도 많이 알고 많이 행하는 자가 ‘주인’ 이 됩니다.
모르는 자는 많이 행하지 못하여 ‘주인’ 이 되지 못합니다.

- ◆ 자기 신앙이라도 조금 사랑하면, 많이 사랑하는 자에게 뺏깁니다.
시대 신앙, 성자가 오셨어도 조금만 사랑하는 자는 뺏깁니다.
성자를 많이 사랑하는 자가 ‘신부’가 됩니다.
- ◆ <성자와 분체와 소통>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납니다.
- ◆ 축구 할 때도 공을 많이 넣은 편이 ‘승자’가 되듯이,
의를 많이 행한 자가 ‘천국을 차지하는 승자’가 됩니다.
- ◆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많이 받아들이고, 많이 행한 자가
‘신앙의 성공률’이 높습니다.
- ◆ 조금 행한 자는 성공률이 10~20%입니다.
고로 자신이 없으니, 거기서 포기합니다.

많이 행한 자는 성공률이 80~90%입니다.
고로 자신이 있으니, 더 행하여 성공합니다.
- ◆ 많이 행한 자는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 성공합니다.
고로 자신 있는 자가 성공합니다.

자신이 없는 자들을 보면, 그만큼 행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로 성공률도 낮습니다.
- ◆ 그동안 많이 행하여 많이 쌓아 놓은 자는 의심이 생겨도
‘자기가 행해 놓은 것’을 가지고 의심을 물리칩니다.

- ◆ 그러나 조금 행하여 조금만 쌓아 놓은 자는 의심이 생기면
‘해 놓은 것’ 이 없으니 의심을 떨치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 ◆ 땅을 팔 때 상대가 계약금을 조금 걸어 놓으면
혹시 상황이 돌아가면 ‘안 사려나?’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대가 계약금을 많이 걸어 놓으면
혹시 상황이 돌아가도 의심을 안 하게 됩니다.

- ◆ 물도 조금 흘러가면 ‘가물어서 말라 버릴까?’ 의심합니다.
물이 많이 흘러가면 가물어도 ‘마를까?’ 의심하지 않습니다.

- ◆ <월명동 약수>를 먹을 때도
식(食)기도 하듯, 음식에 소금 뿌리듯,
예의상 조금만 기도하고 먹으면
배가 터지도록 마셔도 병이 안 낫습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나을 만큼 먹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믿고 먹는 자들만 나으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 ◆ 많이 하면, 누구에게나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 ◆ ‘많이 하는 것’ 이 <답>입니다.
‘배로 하는 것’ 이 <답>입니다.

6월 22일 주일말씀으로 ‘배로 더 잘해라.’ 말씀했지요?

그 말씀을 듣고 배로 더 하니,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하며 여기저기에서 편지를 많이 보내왔습니다.

편지도 반 장이나, 최고로 내용이 많을 때는 한 장으로 줄여서 보내니, 배로 더 시간이 절약됐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하되, 많이 하고 배로 더 하는 자만 ‘표적’을 일으키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많이 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담대한 실천과 과감함’이 필요합니다.

<전환>

오늘은 <개인 신앙>도, <인생 삶>도, <말씀>도, <선생을 아는 것>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알고 믿고 사랑하는 것>도 <휴거>도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해야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휴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 지금은 <휴거 때>입니다.

<휴거>에 대해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할 때입니다.

바다의 고기도 잡는 계절이 있습니다.

꽃계는 6~7월이 잡는 계절입니다.

농사도 ‘여름 곡식, 가을 곡식’ 이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그때는 그 농사만 짓습니다.

<휴거>도 그러합니다. 지금이 ‘300선 휴거 때’ 입니다.

- ◆ (중요) <휴거 때>는 ‘휴거’ 로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고로 ‘휴거 말씀’ 만 핵으로 합니다.

- ◆ <휴거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행해야
혼도 영도 많이 변화되어 300선 휴거를 이루어
‘최고’ 급 천국인 <황금성>에 가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한 손 기본 제스처 하다가 양손 기본 제스처)

<큰일>인데, 조금 해서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조금만 하고, 그 일을 완성하는 자는 없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 많이 행한 자는

‘영’ 이 변화되어 있으니 의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성자 사랑>도 조금만 하면 표가 안 나고, 표적이 안 일어납니다.

<100% 성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지 <100% 성자 사랑>으로 해야

육도 혼도 영도 표가 나게 빨리 변화되어 휴거 300선이 됩니다.

그리함으로 ‘휴거되는 표적’ 을 일으킵니다.

<잠시 쉬었다가>

휴거 100선, 200선에 있는 자들이 자포자기하고 이성 죄나 지으며
판짓을 하면 높은 차원에 올라갔다가도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돈을 벌었는데 탕진하면, 돈이 조금 남습니다. <휴거>도 200선까지
올랐다가 죄를 짓고 탕진하면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지금은 자포자기하고 판짓을 할 때가 아니라 부지런히 많이 행하여
<휴거>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할 때입니다.

그리함으로 <황금성>을 차지할 때입니다.

그리함으로 <자기 인생이 태어난 보람과 목적>을 누릴 때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사람이 투자하며 열심히 하다가도 얻는 것이 적으면, 가다가 중단하
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한 만큼 얻고, 투자한 것보다 10억만 배도 더 얻는 것에
대해 말해 주었지요? 그동안 가르쳐 주었고, 그것을 잊고 살기에 2014
년 상반기 마지막 성령집회를 통해서도 확실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휴거>를 통해 얻는 것은 엄청나게 크고 영원합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시간과 몸과 수고를 투자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한 손 기본 제스처하다가 양손 기본 제스처)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5>

<휴거>는 아무 때나 하지 않지요?

137억 년 ‘우주와 지구 역사상’ 딱 한 번뿐이고,

그것도 ‘구원역사상 성약 때’ 딱 한 번뿐이고,
그것도 ‘분체가 살아 있을 때’ 딱 한 번뿐입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끝>

그래도 이때가 의심이 되면서 믿어지지 않고 실감 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분체도 많이 믿지 못하고, 말씀도 많이 듣지 못하고, 많이 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꼭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많이 행하여 확인해 보고, 확신 속에 살기 바랍니다.

(* 화면을 보겠습니다.) <영상6> 중요

이때 휴거되면, 천국에서도 가장 최고의 위치인 <신부급 천국>, 그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치인 <황금성>에 들어갑니다.

그 <황금성>에서 1000년 성약역사가 끝날 때까지 성삼위와 구원자와 더불어 혼인 잔치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황금성>에서 ‘성삼위의 사랑덩이, 신부’로 살면서 영원히 삼위의 사랑을 받고, 영원히 삼위를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또 육이 살아 있을 때 휴거를 이루니, 육이 살아 있을 때까지 ‘휴거된 영’이 땅과 하늘을 왕래하며 ‘자기 육’을 더욱 돕게 됩니다.

고로 ‘육신’은 ‘휴거된 자기 영’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 의를 행하여 천국에 더욱 자기 공적을 쌓아 올리게 됩니다. 그로 인한 축복을 <땅>에서 ‘육’도 받고, <천국>에서 ‘영’이 더욱 받게 됩니다. <끝>

흔히 ‘내가 수고하고 투자해도 얻는 것이 별로인데...’ 하며 <시간 투자, 인생 투자>를 하다가 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휴거>를 위해 투자하면 영원합니다.

<휴거>를 위해 투자하면 아무리 투자해도 손해가 안 가고 더 좋습니다. 자기가 ‘지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휴거를 위해 그 ‘지구’를 투자해도 전혀 손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1억만 배나 더 얻게 됩니다.

(초록색 부분 기본 제스처)

<휴거>를 위해 투자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을 일’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얻으면, 100년도 못 씁니다.

‘그 값’은 너무도 적고 ‘희망’도 적습니다.

<육적인 것>이 아무리 크고 엄청나도 결국은 곤고하고 허무합니다.

언젠가는 끝나고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고로 반드시 영적인 것, 영원한 것 <휴거>로 받아야 됩니다!

이제는 ‘믿되 절대 믿고, 행하되 많이 행하면서, 인생과 시간을 <휴거>에 투자하자.’ 하고 행하기 바랍니다. (기본 제스처)

하나님은 ‘그 사람의 것’을 ‘그 사람’에게 주지, ‘다른 사람’에게 안 주십니다.

전도한 공적, 관리한 공적, 열심히 행한 공적, 기도한 공적, 참고 견딘 공적, 형제를 사랑한 공적, 성자와 분체를 사랑한 모든 공적이 다 ‘자기’에게 돌아갑니다. 이를 명심하고, 마음 놓고 행하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영계에 가서 ‘250선, 300선으로 휴거된 영들’을 보고, ‘그 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휴거 100선에 있고, 200선에 머물러 있는 영들’을 보고 ‘그 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휴거>를 중하게 여기지 않고 <휴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가며, 조금만 행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건강관리도, 얼굴 관리도 많이 해야 보는 자마다 “표가 난다. 엄청 좋아졌다. 멋있다. 예쁘다.” 하며 놀랍니다.

무엇이든지 조금 하면 했더라도 별것 아니라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많이 해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와서 보고 깜짝 놀라며 “너 대단하다! 너의 그 힘과 끈기와 용맹과 실천력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하시며, 더욱 돕고 함께하며 역사해 주십니다.

조금 하면 협조하는 천사나 보내고 맙니다.

<말씀 마무리>

“배로 해라. 많이 해라.” 하면, 그때만 ‘조금’ 하다가 맙니다. 말씀한 후부터 쪽~ ‘많이’ 하면 정말 표적이 일어납니다.

올해는 <전도>도 꼭 배로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전도 안 한 자들이 많습니다.

휴거된다고 하는 자들이 휴거되려고만 하고, 휴거에 필요한 <전도>를 안 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휴거되려면, ‘휴거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중의 하나가 <전도>입니다.

선생은 생명 전도를 안 했는데 휴거된 영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나 봤습니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소원은 ‘사랑의 대상체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입니다.

그 소원을 못 이루어 드리고, 휴거되겠습니까?

어서 ‘성자의 온전한 사랑의 대상체’가 되고, 그 사랑의 힘으로 생명을 전도하여 구원하기 바랍니다.

휴거되려면, ‘휴거에 필요한 것’을 행하기 바랍니다. (기본 제스처)

오늘 <성자의 비밀의 말씀>을 외쳤으니 이 한마디를 외우고, 하는 것마다 많이 하여 ‘표’가 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축원합니다!